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주일 예배 봉사위원

	12. 27	01. 03	01. 10
대표 기도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성경 봉독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헌금 위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내 위원	유미경 집사	이수현 집사	이수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대강절 절기입니다. 금주는 넷째 주로 기쁨을 상징하며, 흰색 초를 밝힙니다.
  2. 성경 읽기-영의 양식으로 삼시다(단1~7, 벤전1~5, 벤후1~3, 요일1~5, 요이~유, 계1~4장)
  3. 성탄예배-12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브레멘교회협의회 새 규칙)
  4.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 주일예배는 정해진 시각,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형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4.대강절

- 송 영 Chor .....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 112장 ..... 다같이
- 기 도 Gebet ..... 이수현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 출20:16, 신5:20 ..... 이수현 집사  
(2.Moses 20:16, 5.Mose 5:20)
- 설 교 Predigt ..... 거짓 증거하지 말라! ..... 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 421장 ..... 다같이
- 현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 (새 가족 환영) .....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영희 권사

빈방 있습니까?

20년 이상 성탄절이 되면 어김없이 올려지는 연극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공연된 바 있는 연극 “빈방 있습니까?”입니다. 이 연극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우리나라에서 대본으로 만든 것입니다.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탄극을 준비하던 어느 교회 고등부 연극반에서 연출교사는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좀 모자라는 ‘덕구’에게 조연급 여관 주인을 역을 맡깁니다. 모든 면에서 소외되던 덕구에게 자신감을 주려는 연출교사의 배려였습니다.

마침내 성탄절 전야에 무대의 막은 오르고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 앞에서 연극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여관 장면에서 이르러 덕구가 사건을 일으킵니다. 빈방을 애타게 찾는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를 보고 여관주인인 덕구는 “빈방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차마 못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마구간에 가지 마세요’ 라고 외치고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객석에선 폭소가 터지고 연극은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극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빈방이 준비돼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언제든지 모셔들일 수 있는 정결한 방을 예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와 찬양이 있는 시간 / 이현구 작가

\* 그리스도는 기독교에 이르는 길을 가리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 자체다.  
- Hermann Bavink(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 -